

오늘은 2016년 3월 첫째 주일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개학했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번주간에는 올해 처음으로 황사가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가운데 살아갑시다.

2016년 3월 6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1. 오늘 결석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돌아보며 지냅니다.

전명숙, 민주, 허봉운, 정용범, 유일, 김유강, 이혜진, 윤충식, 한상우, 김소영,

오늘은 장년 81명, 중고등부 11명, 유초등부 6명, 아가들 13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 이번 달은 <전도> 하는 달입니다. 모두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말과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합시다.

3. 이번주간부터 수요일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7시30분에 드립니다(예전-8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이번주간까지만 새벽예배를 드리고 다음주부터는 오전 9시30분에 오전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주일에 확정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오전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하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최재원 형제 가정으로부터 선교편지가 왔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부착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다함께 기도합니다.

6.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박소희 자매가 어젯밤(2016년 3월5일)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산모와 아가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기의 미국이름은 Aimee라고 합니다.

7. 지난주간부터 <주중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혼자매조는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청년들은 금요일 저녁8시입니다.

8.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토요일부터 녀주동안에 걸쳐 <마가복음 하루종일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게 될 경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공부는 <요일, 시작 시기>등이 유동적이어서 이번주 수요일 정도에 결정될듯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2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 이번달부터 7월까지의 <예배담당표>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청년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12. 이번 3월학기부터 고등학생 2명 학비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학생이 선정되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3. 아파트 관리실에 제출할 출입차량번호를 다시 조사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차량이 바뀌신 분들은 김명중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 재작년(2014년) 성탄절 바자회때 모금한 돈을 네팔후원금으로 보냈었는데, 그 돈이 사용된 네팔교회 건축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15.이사: 백상준-김정은(백주현)-사당동으로

16. 교회 계좌로 직접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87-21-0060-940 조호진

국민은행 830502-04-176405 조호진 (예배당 매입현금통장)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308-12-390429 조호진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